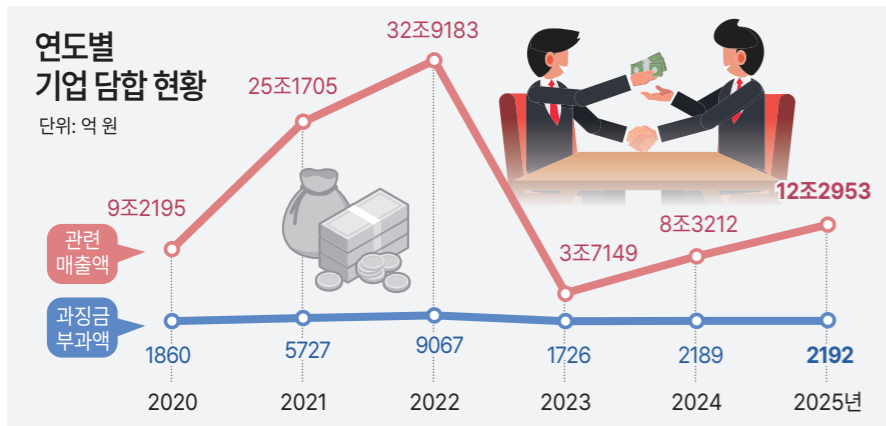


담합 매출 91조, 과징금은 2조... '남는 장사'에 배짱

(2020년~올 상반기)



순위	기업명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액
1	현대제철	4조8232	1775
2	에스케이텔레콤	3조2933	402
3	케이티	2조7921	385
4	하림	2조7833	478
5	엘지유플러스	2조5253	334
6	흥아라인	1조8776	337
7	울프	1조5865	252
8	현대로템	1조3460	323
9	장금상선	1조1459	206
10	현대리프트	1조476	233
11	하림지주	8956	171
12	씨제이대한통운	7924	194
13	한강식품	6474	103
14	롯데지주	5877	235
15	농협목우촌	5577	2
16	한진	4732	100
17	케이씨씨글라스	2842	103
18	에이지엠	2500	36
19	효성중공업	1485	116
20	에이치디현대엘렉트릭	957	66
21	코오롱인더스트리 주식회사	649	12
22	롯데글로벌로지스	545	5
23	갤럭시아메리트리	485	19
24	주원산오리	376	6
25	엘엑스인터내셔널	369	8
26	코오롱글로벌	369	4
27	에이치에스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333	5
28	에스엠상선	220	4
29	에스케이네트웍스	200	3
30	한화손해보험	176	2
31	에스케이플래닛	171	8
32	삼성화재해상보험	153	2
33	디비손해보험	153	2
34	디비메탈	122	97
35	한화시스템	115	1
36	한화시스템	115	1
37	엘에스네트웍스	97	0.3
38	아시아아이디티	82	0.6
39	엘에스일렉트릭	17	0.4

상위 대기업들의 담합 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지만 제재는 여전히 미약해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합이 기업에게 사실상 '이익 남는 장사'가 되니 대기업까지 가담하는 현실"이라며 "숨방망이 과징금으로는 담합 억제 효과가 불가능하다. 자진신고 제도 보완 등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합 매출액은 12조2953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규모인 8조3212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과징금은 2192억 원으로 담합 매출 대비 1.8%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숨방망이 처벌로는 뿌리 못 뽑아... 예방 우선 대책 시급
철강·해운 등 전 산업 망라... 대기업 39곳 적발 '불명예'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늘어 비상

담합 매출액은 91조6398억 원에 달했다. 반면 과징금 총액은 2조2764억 원으로 담합 매출의 2.5% 남짓에 그쳤다. 담합으로 얻은 불법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진단이다. 특히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 39곳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은 4조8000억 원 규모의 담합 매출을 올리고도 과징금은 1700억 원대에 머물렀다. 2022년 공정위는 조달청 납품 과정에

서 단가담합을 저지른 현대제철 등 11개 제강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역시 담합 매출이 각각 2~3조 원대였지만 과징금은 300억~4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변호이동 가입자 유치 위한 판매 장려금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1140억 원 부과한 바 있다. 이후 7월 최종 의결서 발송 과정에서 알뜰폰 이탈 변호이동 등의 매출 조정으로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963

억 원으로 경감됐다. 또한 3사의 변호이동의 혜택을 줄이는 담합의 결과로 일평균 변호이동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지속 감소했다. 허 의원은 담합은 철강, 해운, 물류, 식품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합 매출이 1조 원을 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만 10곳에 달했으며 대기업이 담합에 가담할 경우 시장왜곡 효과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전반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담합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가을 불청객' 진드기... 미리 알고 예방하면 걱정 끝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증상 시 내원
'안 물리는 게 최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매년 가을이면 털진드기와 참진드기를 지칭해 관리하고 있다. 2011~2024년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7%로 낮은 편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신부전·수막염·뇌패혈성 쇼크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된다. 털진드기의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이 잘 발생하는 시기를 10월부터 12월 까지 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감염 후 2주 이내에 38~40도의 고열·오심·구토·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가 발생한다.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생기는 게 특징이다. 국내 환자의 약 50~90%에서 가피가 관찰되지만 팔뚝 속이나 겨드랑이, 오금, 배꼽 주변 등 숨겨진 부위에 생겨 놓치는 경우도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법정감염병 제3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1~2024년 국내 누적 치명률은 0.17%로 낮은 편이지만 조기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신부전·수막염·뇌패혈성 쇼크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병원에 가서 확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혈액·조직·가피 검체에서 흔적을 찾아내거나 발병 초기와 회복기 혈액 검사를 비교해 항체 수치가 4배 이상 증가했는지 확인한다.

쯔쯔가무시증은 다행히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독시사이클린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필요시 입원 치료를 진행한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감염 후 2주 이내에 38~40도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가 발생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쯔쯔가무시증 구분별 비교 *쯔쯔가무시증 환자 연간 6000명 보고

-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유충 매개(쯔쯔가무시균) | **주요 증상**: 38~40°C 고열, 두통·근육통, 발진·오한, 가피(검은 딱지)
- 발생 시기**: 9~12월 집중 발생, 4~11월 발생, 야외활동 시기 전반
- 발병 대상**: 50대 이상 농작업·야외활동자 | **치명률**: 0.1~0.3% (국내 누적 0.17%)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한다. 따라서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걸릴 확률이 높다. 털진드기의 성충이나 다른 성장 단계에서는 미소곤충류(예: 톱토끼)의 알을 먹고 산다.

봄철에도 감염 사례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도 남부·북부에 주로 서식하지만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대잎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봄·가을 모두 발생한다. 따라서 지역시기와 관계없이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가피 증상이나 가피가 발견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적절한 치료

를 받아야 한다. 배지운 이대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을철에는 농작업이나 산책·등산·캠핑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진드기를 통한 감염병이 늘어날 수 있어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활동 전에는 긴팔·긴바지·토시양말 등 노출을 최소화한 복장과 함께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활동 중에는 풀밭에 눕거나 오래 머물지 않으며 활동 후에는 입었던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샤워나 목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수아 기자 heosa@skyedaily.com



治人治世 선미디어

고전을 통해 만나는 현대인의 치인치세 해법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1: 고전, 당신의 **생각**을 바꾼다 (334쪽 | 15,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2: 고전, 당신의 **행동**을 바꾼다 (336쪽 | 14,000원)

황종택 칼럼 신은고지신 시리즈 3: 고전, 당신의 **미래**를 바꾼다 (324쪽 | 14,000원)

화제의 책 ★★★★★ 언론인 출신 인문학자의 고전 해석 통한 사회적 문제점 해법 제시